

여수시 웰니스관광 거점화 사업 본격화

행안부 수시 중앙 투자심사 통과 217억원 들여 백야대교 인근 2027년까지 해양 웰니스센터 건립

여수 백야대교 인근에 1만9000㎡ 규모 '해양 웰니스센터'가 오는 2027년까지 건립된다.

여수시는 지난 19일 해양 웰니스센터를 기반으로 한 '뷰티·스파 웰니스관광 거점화 사업'이 행정안전부 3차 수시 중앙 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뷰티·스파 웰니스관광 거점화사업은 여수시의 웰니스(웰빙+피트니스) 관광의 거점 산업으로 육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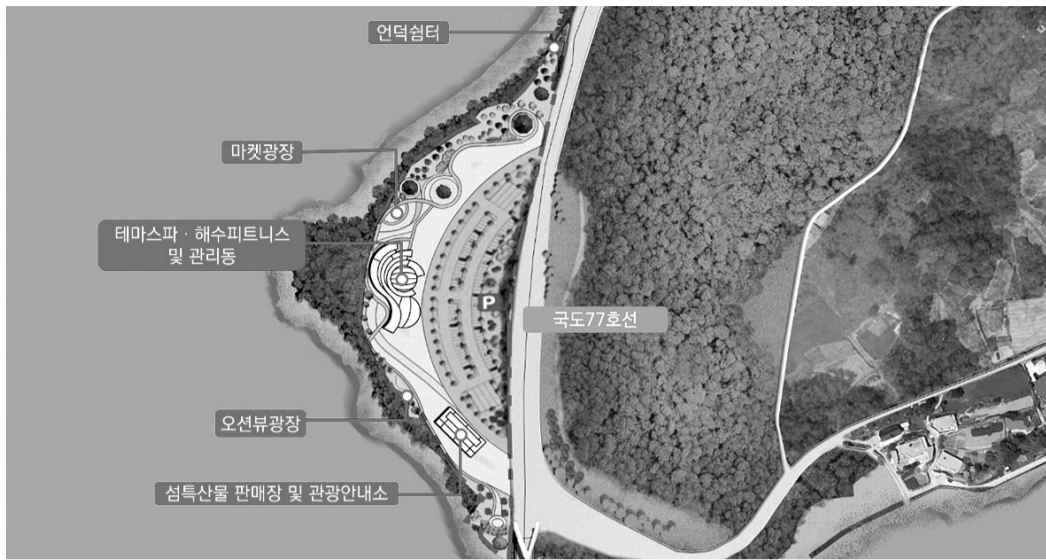
이번 행안부 심사를 통과하면서 여수시는 관련 사업에 대해 국비 106억원과 도비 32억원을 확보하게 됐다.

여수시는 사업비 217억원을 들여 오는 2027년까지 해양 웰니스센터를 건립한다.

센터는 화정면 백야리 백야대교 주변 국도 77호선 유희부지 1만9000㎡(5748평)에 내년 착공, 2027년 완공 목표로 조성된다.

이곳은 온천과 같은 해양 웰니스 체험시설과 섬 특산물 판매시설, 관광 안내소 등을 갖춘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치유를 접목한 관광



여수시가 오는 2027년까지 화정면 백야대교 인근에 해양 치유관광을 즐길 수 있는 '해양 웰니스센터'를 건립한다. 센터 조감도. <여수시 제공>

수요가 늘면서 여수시는 새로운 광역관광 상품을 개발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해왔다.

여수시는 고흥·여수·남해를 잇는 '남중권 해상관광'을 기반으로 한 섬 해양관광지구를 조성할 방침이다.

섬 특산물 판매 공간을 통해 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도 구축할 계획이다.

여수 각 섬의 다양한 특산품을 판매해 섬 주민 소득 증대에 기대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일레븐브릿지와 여수·남해해저터널이 완공되면 해상관광 루트의 활성화로 남해안 섬-해양 관광벨트가 조성될 것"이라며 "그 중심에 '해양 웰니스센터'를 건립해 한국판 웰니스관광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정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보성군, 읍 공모사업 국·도비 1500억원 확보

어촌신활력 사업 등 58건 선정

보성군이 2023년 국·도비 공모사업을 통해 총 사업비 1500억원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년도 확보액 287억원 대비 1213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군은 올해 국도비 확보를 위해 총 71건, 2360억원 규모의 공모사업에 응모했으며 이 중 58건이 선정됐다. 주요 사업은 ▲2024년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149억원) ▲올포항 어촌신활력 증진(300억원) ▲별고갯벌 복원화(70억원) ▲별고봉

림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358억원) ▲2024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61억원) ▲후속 노후상수관망 정비(407억원) 등 58개 사업이다.

확보액 1500억원 중 국·도비가 832억원(55.5%), 군비 593억원(39.5%), 기타 75억원(5.0%)으로 외부 재원이 60.5%를 차지해 군 재정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내년도에도 정부 공모사업 추세를 잘 파악해 보성의 미래와 군민의 품격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고흥군, 농어촌 상수도 공급 사업 순조

2026년까지 68개 마을 공급 목표

고흥군이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고흥군에 따르면 지하수 고갈, 수질 악화 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군민에게 안정적으로 맑은 물 공급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점암·영남지구 사업을 올해 준공했으며, 영남면 상수도 비상공급을 위한 2배수지 광역상수도 유입 공사와 점암면 8개 마을에 상수도 공급을 완료했다.

또 포두면 등 7개 지구 사업에 대해 2018년부터 총 사업비 670억 원을 투입해 연차적으로 물공

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72km 길이의 상수관로 설치와 배수지 1개소를 설치하는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26년까지 총 68개 마을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도양면, 풍양면, 포두면, 점암면, 동강면, 두원면 등 68개 마을 2500여 가구에 상수도를 공급해 물 부족 문제와 수질 문제를 해결하고 고흥군 상수도 보급률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상수도 공급은 군민들의 건강, 위생과 생활 여건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광양시, 여객·화물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제도

교통사고·민원 지역 위주 단속

광양시가 연말을 맞아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구역에 주차된 사업용 여객 및 화물자동차에 대해 계도활동에 나선다.

대상 구간은 교통사고 발생 위험지역, 민원 다발 지역으로 분류된 기존 단속 구간 외에 중마동 흙플러스, 해수사우나, 우림필류, 금호동 전남드래곤즈 축구장 원정팀 출입구 앞, 몰오브광양 옆 공지, 광양읍 운전면허시험장·광양세미존서희스타힐스 방향의 도로이다.

시는 계도장 발부 차량 소유자(법인)에 밤샘주차 금지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적발 차량에 대한 자료를 누적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김성수 광양시 교통과장은 "겨울철 눈비로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도롯가에 주차된 대형 트럭이나 트레일러가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초남 공영 차고지, 신금산단 공영 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등의 장소에 주차해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여수광양항만공사 행안부 '재난대응 안전훈련' 우수기관

여수광양항만공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안전한국훈련은 매년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335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공사는 항만 내 해상 선박사고를 주제로 인명·화재·해양오염 복합재난상황을 가정해 민·관·해경·소방·시민단체 등 24개 기관이 공동으로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에서는 유관기관 모두가 새롭

게 도입한 재난안전통신망을 적극 활용해 현장과 상황실 간 유기적으로 협업한 점이 높은 평가로 이어졌다.

박성현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여수광양항의 안전은 전국 최고 수준임을 증명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끊임없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가 지난 20일 시청에서 '2023년 장학증서 전달식'을 열고 장학생 등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 566명에 5억5100만원 장학금

2023년 장학증서 전달식 16명 1억4600만원 후원금 전달

재단법인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이사장 노관규 순천시장)가 지난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3년 장학증서 전달식'을 열었다.

전달식에는 장학생과 가족, 후원자, 장학회 임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장학회는 올해 이사회 심의를 거쳐 566명의 장학생을 선발했다. 이는 예년보다 260명 늘어난 규모다. 신설 분야인 '플러스알파'와 성적 우수, 특기, 학력 신장, 다자녀, 청향, 희망드림, 국제 교류 등 8개 분야 장학생을 뽑았다.

장학회는 총 5억5100만원의 장학금을 연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이날 장학증서 전달식과 함께 후원금 전달식도 진행됐다. 총 16명이 1억4600만원의 후원금을 전

했다.

노관규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 이사장은 "지속적인 후원과 따뜻한 손길에 진심으로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는 지난 2001년 설립된 이후 지난해까지 2721명의 학생에게 24억 7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